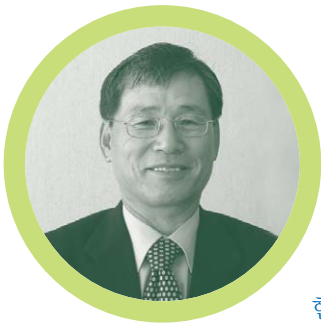


## 한류, 그리고 벤처



지난 3월말 성황리에 종료된 <INKE Spring 쿠알라룸푸르 2007>. 한국 벤처의 동남아 진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흥병철 쿠알라룸푸르 지부장이 보내온 동남아 현지의 한류, 그리고 벤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나는** 2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왔다.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며 사업가로 살아온 내게 모국인 한국은, 어쩌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애뜻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곳곳의 한인 벤처기업인들의 네트워크인 INKE의 말레이시아 의장을 맡아 한국의 벤처기업인들의 세계진출에 힘을 보탬 수 있게 된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INKE는 금년 3월 28~30일 까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INKE Spring 쿠알라룸푸르 2007>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한 국내의 유력 벤처기업 20여개사와 INKE의 해외(캐나다, 미국, 인도, 사우디, 스위스, 동남아 등) 20여개 지부가 참석하여 역대 인케스프링 중 가장 대규모로 치러졌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동남아는 물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한 세미나, 그리고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진행한 열정이 넘쳤던 워크샵 등이 치러졌다. 현지의 관심도 높았다. 말레이시아 장관을 비롯한 3명의 차관급 인사, 주요 기관의 장, 그리고 내로라하는 현지 IT·BT 업체가 다수 자리를 같이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벤처 기업의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IT 기적을 부러워하며, 발전된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던 이들 국가들의 발전 속도는 더더진 반면, 우리나라는 IT를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으니, 이들 나라는 그 신비한 비결(?)에 의아해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역동성이나 저돌성, 그리고 근면한 자세 등에 대하여 특히나 매료되어 있으며, 점차 저변으로 퍼져가는 한류 열풍과 함께 'Korean Fever' 가 불고 있다. 대장금, 겨울 연가, 허준 등의 각종 드라마, 가수 '비' 등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LPGA에서 우리나라 남자군의 발군의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박지성에 대한 광적인 지지. 이들은 우리 한국의 대표선수들을 향해 같은 아시아인으로써 동질감을 느끼며 열렬한 응원을 한다.

문화 이외의 산업측면에서도 동남아 곳곳에 진열된 한국 상품으로 이제는 동남아가 우리의 안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현대차가 여기 저기 거리를 질주하고, 행인들의 손에는 삼성 핸드폰이 들려 있고, 집집마다 LG 냉장고 에어컨이 장식되고 산업, 문화 등 전방위적인 영역으로 '한국' 이라는 영향력이 깊고 넓게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위대한 대한민국, 그 한국의 저력, 한국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입김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이 입김은 동남아에서 사업하는 교민들에게는 엄청난 국가적인 후광으로, 동시에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가장 앞서가는 정보 사회인 조국을 Backbone으로 하는 교민들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환경과 혜택을 누리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며 과제이기도 하다. 나는 이 과제의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INKE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교민의 비즈니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 네트워크는 중국의 화상과 비교되는 한상이 있으며, 해외 무역인 협회인 OKTA가 있다. 하지만 INKE는 조직의 자발성 및 IT·BT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등 젊고ダイナミック한 특성으로, 기존의 조직과는 차별성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부확장 측면에서도 미주나 구주에서도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겠거니와, INKE가 동남아에서 굳건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신흥 국가인 베트남, 인도 등도 금년에 추가 가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류의 저력과 함께 조금이나마 한국 벤처를 뒷받침하고자 설립된 말레이시아의 INKE지부는 15명의 지부 회원이 있으며, 주로 IT·BT 부문에 종사하며 양국 간의 국제 교역과 비즈니스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몇 개의 기업은 상당한 기업 규모로까지 성장하여, 현지 IT 시장에서의 확고한 자리를 구축한 바 있다. 더불어 INKE 조직을 더욱 확대하여 IT 협의회도 만들어 현지기업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IT·BT를 이곳에 더욱 확산 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 네트워크화 되어 가는 대세에 따라, 동남아 국가 간 INKE 네트워크의 강화와 세계 지부와의 연결로 더욱 탄탄한 지부가 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0여개 국가에 40여개 지부로 구성되어 거의 전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하여 쑥쑥 성장하고 있는 INKE. 우리나라 첨단산업과 중소 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창구가 되고, 단순 교역 뿐 아니라 투자 유치, 기술 이전, 합작 등을 통하여 미래 산업 해외 구축의 선봉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흥병철의장 연락처

TEL : +60-3-4252-9430

E-MAIL : bchong88@hanmail.net

주 소 : A 12/5/5, 4th Floor, One ampang Business Avenue, Jalan Amoang Utama 2/2, 68000 Ampang, Selangor, Malaysia.